

농수산경제위원회 세미나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한·미 FTA가 우리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I. 한·미 FTA 협상 경과와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1. 협상의 경과

-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2월 한·미 FTA 추진 발표를 시작으로 미국(워싱턴)과 한국(서울)에서 3차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차 협상에서는 정부 조달 분과 및 무역관련 기술 장벽 부문을 제외한 15개 부문(농업, 섬유, 원산지 및 통관, 무역구제,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상거래,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총칙, 상품무역)에 대해 논의하였고 2차, 3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과 동시에 양국의 상품의 개방단계, 신 금융서비스 진출, 서비스 개방 유보안 및 섬유, 농수산 분야 유보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 지금까지 협상결과를 보면 한·미 양국은 상품의 개방단계, 금융감독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한 신금융 서비스 진출 등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쌀 등 농산물, 섬유,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 2차 협상 최종결과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양국은 1만여 개에 달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 즉시철폐, 3년 내 철폐, 5년 내 철폐, 10년 내 철폐, 기타(민감품목 등) 등의 방식으로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할 것에 동의하였다. '기타'에는 민감품목 양허 제외 혹은 10년 이후 관세 감축 및 철폐 등의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러나 섬유와 농업부문 개방기간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으며, 양국은 8월말에 섬유와 농업 분야에 대해 양허안을 각각 동시에 교환하고 3차 협상 이후 수정안을 놓고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 3차 협상까지가 각자의 카드를 보여주는 협상이었다면 향후 4차부터의 협상은 내 놓은 카드를 거두어드리거나 바꾸는 협상, 즉 주고받기 타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이다.

- 3차 까지 협상에서 한국은 최대한 보수적인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농산물, 서비스업 등의 부문에서 거의 예외 없는 대폭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 즉, 서비스업의 경우 한국은 총 100여개 부문의 유보를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20여개 부문만 유보안에 넣었으며, 농산물의 경우 한국은 약 280여개에 달하는 유보를 제시한 반면에 미국은 쌀을 제외한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표 1> 한미 FTA 협상의 주요 쟁점

분야	협상결과	쟁점
상품무역	양허안 틀 5단계	합의(농산물, 섬유 제외)
자동차	제3국 우회수출 금지합의	미국, 배기량 기준으로 세제 개편 요구
의약품	협상결렬	미국, 약가적정화 방안 철회 요구
농산물	개방안 틀 마련하지 못하고, 8월 개방안 교환	미국, 예외 없는 개방요구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저율관세할당 제도 반대
섬유	각기 개방안 제출	한국, 5년 내 관세철폐 요구 미국, 세이프가드 도입 요구
서비스	서비스 유보안 교환	미국, 19개 분야만 유보(통신 시장 개방 요구) 한국, 100여개 분야 유보
원산지	진전 없음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수입검역	통합협정문 작성 현행 검역수준 유지기로 합의	미국, 분쟁 해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한국, 접촉선 지정
금융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 신금융서비스는 제한적 개방	미국, 한국의 우체국 보험 특혜 철폐 요구 한국, 미국 주정부의 금융관련 규제 철폐 요구

2. 한미 FTA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에 있어 매우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보면 한 시각은 한·미 FTA는 한국경제의 재도약 기반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식의 FTA를 한국이 체결하면 한·미 FTA는 한국경제가 미국경제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 한·미 FTA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주로 정부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많이 제기되고 다른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시 우리나라의 GDP가 전체적으로 1.99%~7.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자본소득증가는 3.23%~10.21% 증가하고 후생증가효과는 68억 달러~281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 CGE 모형에 따른 한·미 FTA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살펴보면, 산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하고 반면 농업의 생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한·미 FTA의 파급효과(KIEP)

	시나리오 I(생산성 효과 고려 안함)	시나리오 II(생산성 1% 증가)
GDP 증가	1.99%	7.75%
자본소득 증가	3.23%	10.21%
후생증가	68억 달러	281억 달러

자료 : 이경태(2006), 「한·미 FTA효과와 부작용」,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

- 한편 반대 측에서는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CGE모형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 양국의 평균관세율은 한국의 경우 11.9%이고 미국은 4.9%로 미국의 관세율이 한국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따라서 미국은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은 관세율을 내릴 여지가 그만큼 많이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 인하는 수출을 늘리기 보다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II. 한·미 FTA 협상과 농업

1. 대미 농산물 수입 추이

- 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입은 2005년 기준으로 약 22억 달러로서 전체 농수산물 수입의 약 19%를 차지한다. 대미 농산물 수입은 1990년도에 전체의 41%에 달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29%, 2005년에는 19%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전체의 71%(16억 달러)를 차지하며, 축산물은 2003년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은 광우병으로 2003년에 비해 65%나 감소하였다.
- 주요 품목별로는 옥수수(313백만 달러), 밀(226백만 달러), 대두(235백만 달러), 돼지고기(141백만 달러), 오렌지(126백만 달러), 사료용 근채류(112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최근에 돼지고기, 오렌지, 사료용 근채류의 수입이 증가추세이며 옥수수, 밀 대두 등 곡물류의 수입은 정제 내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는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여타 국으로 수입이 전환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한두봉, 2006, p.9).

<표 3> 대미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2000	2003	2004	2005
농림축산물	합계	2,433,717	2,739,639	2,744,756	2,198,549
농산물	소계	1,429,659	1,391,501	2,196,506	1,553,621
	곡류	481,163	312,660	1,091,293	591,223
	두류	294,599	325,205	376,925	237,577
	과일류	116,393	189,337	207,182	193,043
	사료	89,074	131,740	128,680	145,470
	기타	448,429	432,559	392,426	386,309
축산물	소계	808,898	1,164,863	337,606	412,281
	포유육류	550,299	904,523	146,760	144,929
	기타축산물	87,121	88,745	93,494	103,976
	낙농품	34,094	38,764	42,162	58,778
	가금육류	48,184	36,048	4,867	33,660
	기타	89,200	96,783	50,323	70,939
임산물	소계	195,160	183,274	210,645	232,647
	원목	77,208	94,499	109,619	119,798
	견과류	18,462	32,099	41,462	54,187
	제재목	43,695	25,414	20,238	20,973
	기타	55,795	31,262	39,326	37,68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관세는 식용 콩, 참깨, 고구마, 감자 등 식용곡물은 관세율이 높고, 채소, 축산물, 과일 등은 비교적 관세율이 낮다(45% 이하). 그러나 농축산물 전체의 관세율은 한국이 46.2%인 반면에 미국은

9.8%로 관세 철폐가 초래하는 영향은 한국이 훨씬 크다.

<표 4> 주요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와 양허관세 비교

(단위: %)

품목	(국내가격-국제가격)/국제가격■100	2004년 양허관세율
콩	974	487
미곡	497	관세화 유예
인삼	372	222.8
고추	270~367 (318.5)	270
낙농품	260	176
마늘	209	360
사과	185~227 (206)	45
쇠고기	122~273 (197.5)	40
복숭아	145~188 (166.5)	45
천연꿀	136	243
닭고기	63~120 (91.5)	18
고구마	80	385
딸기	69	45
배추	59~70 (64.5)	27
감자	55	304
감귤	47	144
포도	17~55 (36)	45
돼지고기	17~30 (23.5)	22.5

자료: 최세균(2006)

2. 농산물 부문의 주요 이슈와 그간의 파급영향 연구

1) 주요 이슈

○ 민감품목의 확대

- 미국은 쌀을 포함하여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반면에 한국은 쌀은 반드시 예외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284개의 민감품목도 예외적 취급품목 대상으로 취급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 미국은 호주와의 협상에서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 농산물 1,799개 품목 중 총 19% 해당하는 342개 품목을 관세화 유예 품목으로 하였으며, 멕시코와의 협상에서는 자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하였지만 멕시코의 농산물 74개 품목을 예외로 인정하였다.
- 한국은 민감품목에서 제외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최대한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 SSG(특별긴급관세)의 도입 여부

- 한국은 SSG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미국은 농업 강국인 호주·칠레·중남미국가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자국의 농산물에 대해 SSG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SPS(위생 및 검역조치)

-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사실상 수입규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위생 및 검역조치이나 미국은 SPS 기준의 자의적 적용을 규제할 것과 쇠고기를 포함한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의 현재 식물검역 상 수입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는 품목들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그간의 파급영향 연구

-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은 협상결과인 협정문과 양허조건에 좌우되나 협정이 진행 중이고 아직 협상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서 사전에 협상 결과에 따른 파급영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파급영향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크게 일반균형모델에 의한 분석방법과 부분균형모델에 의한 분석방법 두 가지로 연구되어 왔다.
- CGE(연산가능일반 균형모형)방법으로 추정한 연구로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서비스업 개방으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농업부문에 반영된다고 상정하고 쌀을 제외한 농산물을 5개 대분류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9개 품목군으로 나누어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의 관세를 50%로 인하하고 나머지 품목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하였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쌀을 포함하여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을 때 FTA 발표 후 농업생산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 부분균형으로 추정한 연구로서는 최세균(2006)이 있다. 최세균(2006)은 관세 철폐로 인한 품목별 영향을 부분균형 모델로 계측한 결과 예상피해액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피해액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1조2천억~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표 5> 한·미 FTA가 농업생산에 미치는 파급영향

시나리오	시장개방 내용	농업생산액 감소액(억원)
KIEP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 80% 감축	9,000
KREI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은 관세 50% 감축, 나머지 관세철폐	22,830
USITC	전 품목 관세 철폐	88,000
최세균 (2006)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 부분균형모형 사용	12,000~20,000

자료: 한두봉(2006) 및 최세균(2006)

○ 수입 증대 우려 품목

-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미국의 비교우위가 큰 부문인 식용 콩, 쇠고기,

돼지고기, 닭 등 축산물, 그리고 고부가가치 농산물인 오렌지, 포도 등 과실류와 과실조제품, 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 유제품 및 이들 가공/조제품, 양파, 인삼, 꿀 등에서 수입증대가 예상되고 있다.

-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등은 현재 식물검역 상 수입금지 품목이나 향후 협상에 따라 수입금지 품목에서 제외되면 이들 품목의 관세가 45% 수준으로 높은 편인데다가 미국산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의 30%에 불과하여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개별 품목별 피해액을 보면(최세균, 2006), 최대 피해액이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쌀, 쇠고기, 대두(콩), 돼지고기, 사과, 닭고기, 포도 등 6개 품목이며, 예상피해액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피해액은 쌀을 제외하더라도 1조2천억~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된다(아래 표 참조). 또 국내 농산물 생산액 순위 상위 20개 품목 중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품목은 배추, 수박, 오이, 무, 참외, 파 등 6개 품목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 생산 감소비율로 볼 때 미국산 대두에 비해 국내산 대두의 가격이 약 8배나 높은 대두(식용 콩)는 국내산 대두의 값이 미국산 대두의 값에 수렴하는 경우 대두의 생산이 약 85%가 감소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사과의 경우 대미 수입이 동식물방역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수입이 허용되고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미국산 갈라, 후지 계통의 사과는 국내산 품종과 대체가능성이 높아 생산 감소비율은 약 25%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음으로 포도도 국내산 대체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 17%의 생산 감축이 예상된다. 그러나 배나 복숭아의 경우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감소율은 약 12%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 쇠고기는 가격차이도 크고(약 2.6배) 관세율도 높기 때문에(40%)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며(약 12% 생산 감축), 닭고기는 현행 관세율수준이 낮으나(20%) 수입 닭고기 시장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68%, 2000~02년 평균) 역시 약 12%의 생산 감축이 예상된다. 돼지고기의 경우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22.5~25%) 미국산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6.8%정도의 생산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액 감소 순위 (전국) (2001 ~ 2003년 평균)

(단위: 억원, %)

순위	품목	'01 ~ '03 평균농업생산액	감소비율 (%)	생산감소액	비 고
1	미곡	97,047	-	-	관세 유예 가정
2	쇠고기	20,998	12.5	3,600	높은 국제가격차 및 관세율 격차
3	대두	2,749	84.8	2,713	국내산 식용콩 생산 거의 중단 예상
4	돼지고기	27,639	6.8	2,300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 감소율
5	사과	4,970	24.9	1,264	미국산 대체 가능성 고
6	닭고기	7,446	12.8	1,200	미국산 수입 증가 예상
7	포도	4,797	17.3	1,135	미국산 대체 가능성 고
8	감귤	3,972	19.0	793	미국산 대체가능성 고
9	낙농품	5,228	5.0	602	신선제품 수입 곤란
10	고추	15,001	5.4	516	국내산 차별화 경쟁력 보유
11	배	3,544	12.6	434	국내산 경쟁력 보유
12	인삼	5,023	5.6	309	가공품에 화기삼 수입증대
13	감자	5,550	4.5	250	신선제품 수입 곤란, 영향미미
14	마늘	1,832	4.0	225	건조마늘 중심 수입, 영향미미
15	복숭아	1,721	12.0	221	국내산 차별화 경쟁력 보유
16	양파	2,748	7.1	184	미국산 저장성 우수, 중국산 대체
17	토마토	2,671	3.0	172	국내산 차별화 경쟁력 보유
18	딸기	6,189	2.5	160	미국산 가격경쟁력 고
19	천연꿀	1,333	-	-	-
20	연초	2,946	-	-	-

자료: 최세균(2006)

III.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1. 충남의 산업구조와 농업비중

- 충남의 산업구조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2004년)로 전국의 평균인 3.6%보다 약 2.5배나 높으며,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도 2004년에 충남의 총 취업자의 24.1%를 차지하여 전국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의 8.1%보다 약 3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충남의 발전은 광공업이 주도하더라도 농림어업 의존 인구가 약 4분의 1이나 되기 때문에 한·미 FTA 협상이 충남의 경제와 농업에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7> 충남의 산업구조(부가가치 기준)와 부문별 성장률

(단위: %)

	2000(충남)	2004(충남)	2004(전국)	부문별 연평균 성장률(2000~2003,충남)
농 립 어 업	12.2	8.9	3.6	-0.1
광 공 업	39.1	41.9	28.7	10.2
제조업	38.6	41.6	28.4	10.3
전기, 가스, 수도	5.0	4.7	2.4	15.5
건설업	9.5	10.9	9.4	8.6
서비스업 및 기타	34.2	33.6	56.0	5.3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2. 충남의 농업생산 및 수출구조

- 지역내 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전국 대비 충남의 농수산업 비중은 13.3%에 달하며(2004년), 생산면적 기준으로는 13.7%에 이른다.
- 작목별로 보면 미곡, 채소, 시설작물 등의 순으로 생산면적이 크며, 전국 대비로는 미곡, 특용작물, 시설작물의 순으로 경작면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8> 전국 및 충남의 농수산부문 GRDP(2004년 경상가격)

	전국(백만원)	충남(백만원)	충남/전국(%)
농수산업	25,087,845	3,331,644	13.3
작물재배업	16,478,926	2,247,643	13.6
축산업	3,514,197	529,753	15.1
농업서비스	937,138	126,653	13.5
임업	1,821,148	265,241	14.6
어업	2,336,436	162,354	6.9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표 9> 작물별 재배면적(2004년 기준)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점유비중
		면적(천ha)	%	면적(천ha)	%	
계		3,172.08	100.00	435.44	100.00	13.73
식량 작물	소계	1,230.94	38.81	181.42	41.66	14.74
	미곡	1,001.16	31.56	168.34	38.66	16.81
	맥류	63.24	1.99	0.41	0.09	0.64
	잡곡	27.05	0.85	0.89	0.20	3.29
	두류	99.74	3.14	8.21	1.89	8.23
	서류	39.76	1.25	3.58	0.82	9.00
채 소		255.35	8.05	23.13	5.31	9.06
특용작물		63.18	1.99	8.02	1.84	12.69
과 수		152.65	4.81	10.59	2.43	6.93
빵 발		0.57	0.02	0.05	0.01	8.27
기타 수원지		29.62	0.93	3.74	0.86	12.64
시설작물		104.40	3.29	13.95	3.20	13.36
기타작물		104.43	3.29	13.12	3.01	12.56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5.

- 축산의 경우 한육우에 약 2만 1천 농가, 닭이 1만 2천 농가, 돼지에 2천 농가가 종사하며, 전국 대비로는 돼지, 젓소의 비중이 높다.

<표 10> 축산가구 및 가축수(2004) 전국 대비 충남 비중

(단위: 호, 마리, %)

구분	전국		충남		전국대비 비중(%)	
	가구 수	가축 수	가구 수	가축 수	가구 수	가축 수
한·육우	188,948	1,665,704	21,631	214,748	11.45	12.89
젖소	9,612	497,261	1,524	79,990	15.86	16.09
돼지	13,268	8,908,456	2,095	1,587,561	15.79	17.82
닭	131,288	106,736,000	12,540	15,524,573	9.55	14.54
사슴	10,874	138,302	2,219	22,505	20.41	16.27

자료: 충남도, 통계연보, 2005

- 2005년 충남 농산물(축산 제외)의 수출액은 1억 2천만 달러로서 품목별로 보면 인삼이 6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이 과일로서 1천 7백만 달러였다. 과일 중에는 사과가 동남아로 일부 수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배이다.
- 국별로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4천 6백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이 2천 4백만 달러, 미국이 2천 2백만 달러였다.
-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품은 인삼이 1천 2백만 달러로 1위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배가 약 7백만 달러를 차지하여 이 두 품목은 대미 수출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충남 농업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이 두 품목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의 대미 수출은 불과 2천만달러(한화 약 190억 원)에 그쳐 충남 농업부문(작물재배업) 총생산액 3조2천억(2004년 기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한·미 FTA 체결이 충남 농업에 미칠 영향은 플러스 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 축산의 경우 충남의 수출실적은 거의 미미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도 충남의 수출실적은 삼계닭 1만 4천3백달러에 그쳐 농산물의 수출 규모와 비교할 때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전국적으로도 축산물은 수출 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북한(금강산 관광)이나 이라크(파병 군납용)를 제외하고는 수출실적이 거의 없다.

<표 11> 충남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불)

	2004년	2005년도 종류별·품목별 수출실적					
		계	일본	미국	중국	동남 아시아	기타 (유럽 등)
농산물	97,035	102,901	23,993	22,407	9,606	45,846	1,050
채소	2,600	2,720	1,851	167	0	697	6
김치	5,208	4,345	3,645	439	0	70	191
과일	17,949	20,670	34	7,191	242	13,128	75
화훼	7,820	7,724	1,830	2,103	3,722	69	0
인삼	63,459	67,443	16,633	12,508	5,642	31,882	778

자료: 충남도

3. 충남의 품목별 피해액 추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는 CGE 모형을 가지고 농업생산액 감소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 추산 결과를 인용하여 충남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추계하면, 전국적으로 농업생산 감소액이 총 2조 2천8백30억 원이기 때문에 전국 대비 충남의 농업생산 비중을 감안할 때 충남 농업의 생산 감소액은 약 3천1백33억 원으로 추산된다.

<표 12> 충남의 농업생산감소액

	전국 농업생산감소액	전국 농업생산액 중 충남의 비중*	충남의 농업 생산감소액	비고
한국농촌경제연구 원(KREI)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 결과	22,830억 원	13.7%	3,133억 원	쌀을 제외한 곡물과 유지작물은 관세 50% 감축, 나머지 관세철폐

* 주 : (충남 작물재배업 총산출 + 충남 축산업)/(전국 작물재배업 총산출 + 전국 축산업 총산출)%

- 그러나 이 방법은 분석에 이용된 자료가 2001년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농산물을 9개의 품목군별로만 분석하였기 때문에 개별 품목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쌀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만약 쌀이 협상에서 포함된다면 예견될 수 있는 결과를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세균(2006)의 부분균형 모델을 사용한 품목별 피해

액 추정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농업의 영향을 파악한다. 다만 최세균(2006)의 연구도 쌀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한·미 FTA 협상의 모든 가능한 상황을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쌀에 양허관세를 50%가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1)와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는 경우(시나리오 2)로 나누어 예상 피해액을 추산해 본다.

- 품목별 영향은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입산 가격의 하락이 수입산 수요의 증가를 초래하여 국내산 수요 대체 → 국내산 가격하락 → 국내 생산감소를 초래하므로 수입산 가격하락의 국산 수요 교차탄성치를 구하여 생산감소액을 추정할 수 있다.
- 충남의 농산물 품목별 예상 생산감소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입산 가격하락의 충남 농산물 수요 교차탄성치를 구해야 하나,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충남만 별도로 계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석상의 실익도 크지 않으므로 최세균(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품목별 피해액을 충남의 각 품목별 생산비중으로 곱하여 충남의 품목별 예상 피해액을 추산하기로 한다.
- 먼저 품목별 생산액 순으로 본 충남의 주요 농축산 생산 품목은 <표 13>과 같은 데, 미곡이 전체 농축산물 총 생산액 중에 37.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돼지, 우유, 수박, 딸기, 닭, 한우, 인삼, 토마토 등의 순으로 충남의 총 농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러나 쌀을 제외하고는 이들 품목의 비중은 가장 큰 경우(돼지)라도 7%를 넘지 않기 때문에 한·미 FTA에서 쌀이 포함되는가 안되는가 여부가 충남 농업에 미치는 피해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 이들 주요 30개 품목이 2004년 충남의 농산물 총 생산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81%이다.
- 상기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상위 20대 피해 품목과 생산감소액을 추산해 본 결과(<표 14> 참조), 쌀에 양허관세를 50% 적용되고 나머지 품목은 전부 관세가 폐지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총 연간 피해액은 9,901억 원에 이르며(시나리오 1),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만 관세가 철폐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상위 20개 품목의 전체 예상 피해액은 약 1,425억 원으로 추정된다(시나리오 2).
 -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역시 미곡으로 연간 약 8천 5백

억 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되며, 다음은 식용 콩으로 연간 29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전망이다, 돼지, 닭, 한우, 포도, 사과 등도 피해액이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충남의 품목별 생산액 순위(2004)

순위	품목	생산액(억원)	비중(%)	누적비율(%)
1	미곡	17,922	37.2	37.2
2	돼지*	3,154	6.5	43.8
3	시유	2,487	5.2	48.9
4	수박	2,002	4.2	53.1
5	딸기	1,610	3.3	56.4
6	닭*	1,411	2.9	59.4
7	한우*	1,262	2.6	62.0
8	인삼	1,254	2.6	64.6
9	토마토	922	1.9	66.5
10	고추(건고추)	916	1.9	68.4
11	포도	911	1.9	70.3
12	배	870	1.8	72.1
13	배추	671	1.4	73.5
14	오이	558	1.2	74.7
15	마늘	508	1.1	75.7
16	사과	474	1.0	76.7
17	과	395	0.8	77.5
18	콩	346	0.7	78.2
19	무	340	0.7	78.9
20	호박	225	0.5	79.4
21	고구마	205	0.4	79.8
22	참깨	144	0.3	80.1
23	복숭아	130	0.3	80.4
24	단감	109	0.2	80.6
25	양파	33	0.1	80.7
26	상추	31	0.1	80.8
27	참외	21	0.0	80.8
28	감자	18	0.0	80.8
29	느타리버섯	6	0.0	80.9
30	감귤	0	0.0	80.9
충남 농산물 총생산액**		48,150	100.0	

주: * 축산(한우, 돼지, 닭) 생산량은 도축마리수를 기준으로 계산

** 제비업 및 축산업 생산총액(농업서비스, 임업, 수산업 제외)

자료: 농림부, 「농업통계연보」, 2005 및 충남도, 「통계연보」, 2005

<표 14> 한·미 FTA 관세철폐에 따른 충남의 농산물 생산 감소액

(단위: 억원, %)

순위	품목	연간 생산액(2004년)	생산감소액	감소비율(%)
1	미곡	17,922	8,476	47.3
2	콩	346	293	84.8
3	돼지	3,154	197	6.2
4	닭	1,411	180	12.8
5	한우	1,262	158	12.5
6	포도	762	132	17.3
7	사과	510	127	24.9
8	배	769	97	12.6
9	인삼	1,254	70	5.6
10	고추	916	50	5.5
11	딸기	1,605	40	2.5
12	토마토	908	27	3.0
13	마늘	508	20	3.9
14	복숭아	125	15	12.0
15	팥	9	7	77.8
16	녹두	5	4	80.0
17	양파	33	2	6.1
18	땅콩	25	3	12.0
19	메밀	1	1	100.0
20	감자	13	2	15.4
총 생산 감소액 1(미곡 포함)			9,901	
총 생산 감소액 2(미곡 제외)			1,425	

* 생산액은 2004년 기준, 미국의 생산 감소율은 한두봉 교수(2006)가 추계한 자료에 기초

4. 시군별 피해액

- 시군별로 피해액 규모를 보면, 쌀을 포함할 경우 당진이 1천 3백 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서산 1천 1백억원, 예산 780억원, 아산 750억원 등의 순으로 피해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쌀을 포함할 경우 당진, 서산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지역의 논 농사 경작면적이 충남 시군에서 가장 넓고, 미국의 지역 내 농산물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9% 및 71%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15> 충남의 시군별 농산물 생산 감소액

(단위: 억원)

순위	시군	쌀 포함 시	순위	시군	쌀 제외 시
1	당진군	1,301.5	1	천안시	183.9
2	서산시	1,114.0	2	예산군	156.1
3	예산군	783.0	3	홍성군	122.6
4	아산시	754.2	4	아산시	121.7
5	연기군	730.1	5	공주시	115.1
6	부여군	710.4	6	논산시	113.9
7	서천군	630.7	7	당진군	114.4
8	홍성군	622.2	8	부여군	83.2
9	천안시	607.4	9	서산시	79.7
10	공주시	605.7	10	보령시	68.9
11	보령시	593.8	11	연기군	64.1
12	태안군	541.5	12	금산군	60.2
13	청양군	370.6	13	청양군	57.6
14	금산군	294.7	14	태안군	56.2
15	논산시	242.4	15	서천군	28.5
	전 체	9,902.1		전 체	1,426.0

○ 한편 쌀을 제외할 경우 천안시가 가장 피해액이 크고 다음이 예산, 홍성, 아산 순으로 피해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이들 지역의 피해액이 큰 것은 포도와 배 등 과수(천안이나 아산), 그리고 축산(예산, 홍성 등)과 같이 한·미 FTA로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 한편 전통적인 충남의 농업지역으로 알려진 논산, 공주, 부여, 금산 등에서 피해액이 천안, 예산, 홍성 등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들 지역의 농축산 생산규모나 경작면적이 북부지역에 비해 작고, 주요 피해 예상품목인 축산 및 과수의 생산비중도 낮기 때문이다.
- 그러나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논산, 공주, 부여, 금산 등의 지역에서 피해가 결코 적다는 것은 아니다. 북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도 지역 농업총생산의 약 4~5% 규모에 해당하는 생산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쌀 제외 시 시군별 생산감소 비중과 주요 피해 품목

	총생산액 [*]	생산 감소액	생산감소 비중(%)	비 고
천안시	2293.1	183.9	8.0	포도(78억), 배(39억)
예산군	2443.0	156.1	6.4	돼지(16억), 사과(68억), 한육우(21억)
홍성군	2547.3	122.6	4.8	돼지(45억), 한육우(25억)
아산시	2301.2	121.7	5.3	포도(24억), 닭(20억), 배(20억)
공주시	2076.6	115.1	5.5	콩(42억), 한육우(19억), 닭(13억)
논산시	2151.9	114.4	5.3	딸기(23억), 돼지(19억), 인삼(13억)
당진군	3564.4	113.9	3.2	돼지(25억), 닭(20억), 콩(19억)
부여군	2429.2	83.2	3.4	콩(22억), 닭(16억), 토마토(11억)
서산시	2767.6	79.7	2.9	콩(32억), 한육우(14억)
보령시	1770.4	68.9	3.9	돼지(18억), 닭(18억)
연기군	1968.5	64.1	3.3	콩(15억), 닭(10억)
금산군	1120.4	60.2	5.4	인삼(22억), 콩(14억)
청양군	1095.8	57.6	5.3	콩(24억), 닭(10억), 한육우(9억)
태안군	1496.0	56.2	3.8	콩(29억), 마늘(8억)
서천군	1511.4	28.5	1.9	닭(7억), 콩(6억)

* 주: 시군별 농축산물 총 생산액을 추정할 통계가 없기 때문에 주요 30개 농축산물 품목의 시군별 생산액(2004년)을 합계하여 계산하였다. 충남 전체의 경우 주요 30개 품목의 생산 합계는 총 농축산물 생산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5.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 종합

- 충남 농축산부분의 지역내총생산(부가가치)은 쌀을 포함할 경우 20.5%가 감소할 것이며 쌀을 제외할 경우 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¹⁾ 만약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포함될 경우 충남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협상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한편 농축산 부문이 충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충남 전체 지역내 총생산에는 약 0.2%(시나리오 2)에서 1.3%(시나리오 1)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산업에서 농림수산부문의 비중은 7.7%이나 임업, 수산업은 제외한 농축산 부문만의 비중은 6.4%이다(2004년 기준).

- 그 외에도 피해액 규모가 큰 콩, 돼지, 닭, 한우, 포도, 사과 등을 민감품목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충남 전체 농축산 생산 비중에서 크지 않더라도 지역집중도가 높아 해당지역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삼(금산), 딸기(논산) 등도 협상과정에 민감품목으로 반영토록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인삼은 전국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피해대상 우선순위가 12위에 해당하나, 충남의 경우 9위의 피해품목이며 특정지역(금산 등)의 농가가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민감품목에 반드시 반영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미곡을 제외할 경우 농축산부문에서 차지하는 예상피해액의 비중은 3.0%로 작기 때문에 만약 상위 피해 품목 5~10개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실제 한·미 FTA 협상이 미치는 충남 농업에 대한 영향은 예상과 달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 전국의 경우도 2004년 총 농축산부문 생산액은 약 35조원으로, 이 중에서 약 2조원의 생산피해(20대 품목합계 혹은 KREI 추계 등)가 예상된다면 감소비중은 약 5.7%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논란의 여지가 가능하며, 그동안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나 대외정책연구원 등에서 한·미 FTA의 농산물 부문에 대한 우려가 사실보다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해 온 근거가 되어 왔다.

<표 17> 시나리오별 충남 농축산부문의 지역내 총생산(부가가치) 감소 비율

	충남 농축산부문 지역내 총생산(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 1 (쌀 포함)	시나리오 2 (쌀 제외)	비중 ①	비중②
2004년 기준(억원)	21,849.8	5,711.1	822.0	20.5	3.0

주 1 : 2004년 재배업 및 축산업의 부가가치율 57.7%(경상가격)을 감안하여 각 시나리오별 생산감소액을 부가가치액으로 환산

주 2 : 비중①은 시나리오 1의 경우 충남 농축산부문의 지역내총생산 감소비율, 비중 ②는 시나리오 2의 감소비율

- 그러나 영향 추정의 결과를 해석할 경우 추정방식의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예상 생산감소액을 일반균형 혹은 부문균형 방식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공급곡선이 생산중단점(평균가변비용 최소점)이하에서도 계속 생산이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개방으로 가격이 평균가변비용 이

하로 떨어지면 해당 품목의 국내생산이 전면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즉 실제 해당품목의 국내생산은 제로로까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생산감소는 추정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예상 피해액의 추정 결과 예상보다 한·미 FTA가 미치는 농축산부문에 대한 영향이 작고, 쌀을 제외한 몇 가지 주요 민감품목만 성공적으로 협상에서 방어한다면 한·미 FTA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이다.
- 이명현(2006)은 이러한 피해 추정방식이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소득이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품목별 충격의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농가의 73%가 농가소득의 5%이상 수입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다.
- 한편 고추의 경우는 농가의 약 17%가, 대동물은 농가의 약 11%가 농가소득의 5%이상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마늘, 귤, 포도, 감자, 보리, 사과, 배, 담배, 콩 등의 경우 농가의 약 2~5%가 소득의 5%이상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쌀을 제외하더라도 고추, 대동물, 마늘, 귤, 포도, 감자 등 주요 민감품목이 일시에 모두 관세가 철폐되면 농가 소득의 5%이상의 감소를 경험하는 농가 비중은 전체 농가의 최소 20~3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한·미 FTA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가에 따라 충남 농업이 받는 피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만약 쌀을 포함하여 주요 민감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에 유예기간을 둔다면 충격이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쌀을 포함하여 미국의 핵심 관심 품목인 농산물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상과정에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며,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2004년 한미 쌀 협상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가로 일정량의 수입쿼터를 할애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에도 농업의 채산성이 낮아 매년 농업인구의 급감과 농가 부채의 급증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의 체결은 충남 농업의 쇠퇴를 더욱 급속히 촉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IV. 충남의 대응전략

1. 대 정부 건의사항 : 충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상전략

- 충남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이해득실은 가) 한미 협상에 있어서 충남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 나) 대내적으로 충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성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설득, 이해조정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 협상에 있어서 충남의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의 입장을 반영한 협상전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외 협정 추진 경험을 보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체결하고 지방정부는 여기에 따라가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진전된 나라일수록 대외 협상에 앞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여 협상에 반영해 왔다. 호주·미국 간의 FTA과정에서도 호주 정부는 미리 FTA의 협상시작과 연방정부의 협상방향을 주정부에게 통보하고 주정부별로 이해관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국과 협상에 임하였다.
- 물론 개별지역의 이해관계와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국가 전체의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도 수렴하는 노력이 있을 때 협상에 대한 지역의 지지와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 농업은 국가 전체로 볼 때 약 4%미만의 중요도만을 가지나 충남에서는 중심 산업의 하나이므로 3차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국의 섬유분야와 한국의 농업분야를 맞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 충남은 분명히 반대 의견을 정부 협상팀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
- 쌀의 경우 충남은 미작농가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협상에서 제외되도록 촉구해야 하며, 그 외에도 피해액 규모가 큰 콩, 돼지, 닭, 한우, 포도, 사과 등은 민감품목에 포함시키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충남 특정지역에 집중도가 높아 해당지역 농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삼(금산), 딸기(논산) 등도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으로 반영토록 건의할 필요가 있다.

2. 충남의 내부적 대응

○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 재검토

- 충남은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농업비중이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고 농림어업 취업자 수도 총 취업자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여가와 휴식의 장 제공, 전통과 문화, 국토환경보전이라는 다면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공주, 부여, 논산, 금산 등 농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지역의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산업이다.
- 한·미 FTA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몇 개 민감품목에서 양허배제를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관세쿼터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농업의 개방이 불가피하여 충남의 농업 쇠퇴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나 그간 충남도정에서 농업은 제조업에 밀려 부차적인 산업으로 취급되어 왔다.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생명산업으로서 농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도정 최고 관리자의 관심과 도민의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충남도는 민선 4기 농어업 농어촌 종합대책을 금년 말까지 수립 확정할 예정이나 현재 나온 시안으로 판단하건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응책이 빠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민단체나 관련 당사자들은 ‘선 대책, 후 협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이번 한·미 FTA 협상도 ‘선 협상, 후 대책’의 전례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도 차원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별, 시군별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기구나 대책반을 마련하여 충남의 이해를 반영한 협상의제 설정을 중앙당국에게 요구하고, 도내 피해 최소화와 구조조정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과수, 축산 등 피해부문의 지원

-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피해가 큰 부문에 대하여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지만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홍성, 예산의 축산, 천안, 아산의 과수, 논산 딸기, 금산 인삼 등의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 둘 필요가 있다.

- 한·칠레 FTA 체결이후 과수부문은 피해구제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나(FTA 이행특별법 및 FTA 특별 기금) 콩 등 식량작물이나 축산부문에 대해서는 피해구제와 지원 대책이 없다.
- 이와 관련하여 그간 중앙정부 지원은 품목중심의 개별적, 임시방편적 피해 지원이므로 도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구조조정 체계의 도입을 중앙정부에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 시행되는 ‘무역구조조정지원법’은 제조업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농업부문의 피해보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구조조정

- 콩, 보리, 포도 등 경쟁력이 낮은 품목은 유채, 메실 등의 대체작목으로 전환하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는 예산, 홍성 등의 축산부문에 대해서도 품질고급화, 차별화로 안정적인 국내산 존립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인삼의 경우 미국산 화기삼(花旗蔘)과 품질차이 때문에 수입이 급증할 우려는 적으나 가공원료, 인삼엑기스 형태로 수입증가가 예상되므로 생산, 유통계열 확대, 지리적 표시제 도입,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해 국내수요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농산물 수출의 확대

- 현재 충남의 농산물 수출은 약 1억 달러수준으로 충남 전체 농산물 생산량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이다. 충남 농산물 수출 1위인 인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주력 상품화하고, 이미 낮은 관세로 개방되어 있고 전업화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춘 화훼, 시설채소, 김치 등도 수출 상품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치, 화훼 등의 수출은 각각 4백만 달러, 7백만 달러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류비, 신선도 유지 등의 제한요인 극복을 통해 수출증대를 꾀해야 한다.

- 다만 멕시코, 칠레와 FTA가 기 체결되어 있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확대는 쉽지 않은 전망이므로 동남아와 일본 시장을 겨냥하여 수출확대를 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개방에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 대책 마련
 - 농외 취업이 어렵고, 시장개방 적응이 어려운 고령·중소농에 대한 특별 대책이 요망된다.
 - 중앙정부 차원의 기 시행중인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검토 중인 고령·중소농에 대한 농촌형 특별소득보전, 농촌형 역모기지 도입 등과 아울러 도 차원에서도 산불감시요원, 하천지킴이, 꽃길 가꾸기 등 고령 농업인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부록 > 시군별 품목별 농축산물 생산감소액

(단위: 억원)

	충남전체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미곡	8476.1	423.6	490.5	524.8	632.5	1034.3	128.5
콩	293.0	16.4	42.4	12.2	14.1	31.9	15.9
돼지	197.0	17.4	10.6	18.1	15.2	6.0	19.0
닭	180.0	17.9	13.0	17.7	20.4	7.7	11.4
포도	132.0	77.9	0.7	4.2	24.3	1.3	3.5
사과	127.0	1.7	3.9	0.9	11.9	3.2	4.7
한육우	158.0	4.8	19.2	9.1	7.0	14.4	7.8
배	97.0	38.5	4.3	0.4	20.2	2.1	8.3
인삼	70.0	5.5	2.7	2.0	2.7	2.9	12.9
고추	50.0	2.6	5.1	1.8	2.1	2.0	1.2
딸기	40.0	0.0	2.1	0.5	0.0	0.2	23.0
토마토	27.0	0.1	7.6	0.5	0.5	0.3	2.6
마늘	20.0	0.2	0.5	0.3	0.8	4.2	0.6
복숭아	15.0	0.5	1.8	0.0	1.6	0.2	1.5
팥	7.0	0.2	0.6	0.2	0.5	0.9	0.6
녹두	4.0	0.1	0.3	0.5	0.2	0.7	0.1
양파	2.0	0.0	0.0	0.0	0.0	0.5	0.2
땅콩	3.0	0.0	0.0	0.0	0.0	0.6	0.3
메밀	1.0	0.0	0.1	0.6	0.0	0.1	0.0
감자	2.0	0.0	0.1	0.0	0.1	0.4	0.0
보리	1.0	0.0	0.1	0.1	0.1	0.1	0.0
합계	9,902.1	607.4	605.6	593.9	754.2	1,114	242.1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미곡	234.5	666.0	627.2	602.1	313.1	499.6	626.9	485.3	1187.1
콩	13.7	14.8	22.1	6.2	23.8	13.4	17.6	29.1	19.4
돼지	3.0	8.1	6.8	2.0	3.9	44.7	15.6	1.2	25.5
닭	2.7	10.4	16.0	7.4	9.7	14.9	11.2	0.2	19.5
포도	5.8	4.5	2.1	2.8	0.0	0.2	0.8	1.4	2.4
사과	3.3	0.3	1.2	1.3	0.5	5.7	68.3	1.5	18.5
한옥우	3.4	8.4	9.0	4.3	9.1	24.8	21.1	3.7	12.0
배	3.8	4.5	1.1	0.1	1.2	2.1	8.0	0.4	2.1
인삼	21.5	3.5	2.0	0.3	0.2	3.0	5.1	2.9	2.7
고추	0.7	1.2	2.4	1.5	6.1	5.7	2.9	5.1	9.6
딸기	0.6	1.1	6.6	0.1	0.2	4.7	0.8	0.0	0.1
토마토	0.1	0.5	10.9	0.3	1.4	0.7	1.0	0.2	0.3
마늘	0.0	0.1	1.0	1.3	0.4	1.1	0.9	7.6	0.9
복숭아	0.8	6.2	0.6	0.1	0.1	0.7	0.7	0.0	0.2
팔	0.5	0.2	0.7	0.5	0.4	0.5	0.7	0.3	0.3
녹두	0.2	0.1	0.2	0.2	0.2	0.2	0.4	0.3	0.3
양파	0.0	0.0	0.1	0.1	0.0	0.1	0.0	0.8	0.1
땅콩	0.0	0.0	0.1	0.0	0.4	0.0	0.8	0.8	0.0
메밀	0.1	0.0	0.0	0.0	0.0	0.0	0.0	0.0	0.0
감자	0.1	0.1	0.1	0.0	0.0	0.1	0.1	0.1	0.6
보리	0.0	0.0	0.0	0.0	0.0	0.1	0.1	0.4	0.0
합계	294.7	730.1	710.4	630.7	370.6	622.2	783.0	541.5	1,301.5

참 고 문 헌

- 김홍중·이창수·김균태·강준구·박순찬(2005),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농림부(2005), 『농림통계연보』.
- 왕윤중·정인교(1998), 「한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경제적 효과」, 『한국 경제의 분석과 전망』. 제 4권 제2호, pp. 135~188.
- 이명현(2006),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평가한 민감품목」, 미발표 논문.
- 이준규(2006), 「미국이 맺은 FTA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식·이창수·이경희(2006. 01),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교통상부(2006), 「한·미 FTA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
- 충청남도(2005), 『충남도정백서』
- 충청남도(2005), 『통계연보』 및 시군별, 2005, 『통계연보』.
- 최세균(2006),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품목 선정 방향」, 한·미 FTA 농업계 대 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미 FTA 특별대책연구단.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 년도.
- 한두봉(2006),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과 추진전략」, 한·미 FTA와 한국경제 세미나,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2006. 5. 17).
-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2006), 『한·미FTA국민보고서』. 서울: 그린비
- World Bank(2003), Lessons from NAFT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Countries: A Summary of Research Findings.
- Weisbrot, Mark; Rosnick, David; Baker, Dean(2004), "NAFTA at Ten", The 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Cepr). March 1, 2004.